



2020년 7월 19일(제991호) 연중 제16주일(농민 주일)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천국 = 16시 12분”

강론을 준비하다가 맑은 공기가 필요해 성당 마당을 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성전을 청소하고 제대를 차리는 등, 주일 종교행사를 준비하는 군종 병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연하게 다른 미래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오늘의 나의 모습이 앞으로 다가올 천국 그 자체입니다.

군종신부 : 안토니오야. 하늘 나라가 뭘까?
 군종병 : 하늘 나라요? 그게 뭐예요? 잘 모르겠는데요?
 군종신부 : 음, 그럼 천국이란 게 뭘까?
 군종병 : 아! 천국은 16시 12분이요.
 군종신부 : 어? 뭐래니?
 군종병 : 현재라고요. 지금, 이 순간 제가 너무 좋고 행복하니, 이게 천국 아닌가요?
 군종신부 : ...

오늘 예수님께서서는 하늘 나라를 겨자씨와 누룩에 비유하십니다. 우리 눈곱보다도 작은 겨자씨가 커다란 나무가 되는 것처럼, 아주 적은 양의 누룩을 통해 밀가루가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이미 우리 곁에 와있는 하늘 나라가 지금은 내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 크기가 작고 미미해 보이지만, 우리의 예쁜 하루하루를 통해 크고 멋진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작아 보이는 나라가 이미 하늘 나라라는 것이지요.

서로가 좋은 그곳이 하늘 나라, 서로가 배려하고 위하는 그곳이 하늘 나라, 사랑의 마음만이 가득한 그곳이 하늘 나라, 마음먹기에 따라 내 삶까지도 달라지는 그곳이 하늘 나라, 지금 내가 머무는 그곳이 하늘 나라, 그냥 이 순간 그 자체가 하늘 나라. 언제부터인가 무언가 몇몇어진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하늘 나라를 표현하는 게 마치 당연하게 보였던 저에게는, 너무도 심플했던 군종병의 대답이 놀라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늘 나라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 나라는 이 땅에 있으며 지금, 이 순간의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완전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행복해도 됩니다. 아니 행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며 명령입니다. 그러니 모두 행복하십시오. 항상 사랑하며 살아가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지금, 이 순간 하늘 나라의 행복이 우리 삶 안에서 시작되었으니, 매일매 순간 그 기쁨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삶은 순간이 모여 이루어집니다. 수많은 순간이 모여서 하루를 이루고, 그 하루가 모여 내 인생을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현재 모습은 장차 우리가 이루게 될 모습의 그림자입니다. 일상생활에 나타나는 매일의 삶이 그렇지 않은데, 갑자기 확



김인식(세례지요한) 신부
해군교육사(교육사) 성당 주임

- 제 1 특 시** 지혜 12,13.16-19
- 회 답 송** ◎ 주님, 당신은 어질고 용서하시는 분이시옵니다.
- 제 2 특 시** 로마 8,26-27
- 특음 보호송** ◎ 알렐루야.
○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찬미받으소서.
아버지는 하늘 나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
- 특 음** 마태 13,24-43
- 영 성 제 송** 당신 기적들 기억하게 하시니,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로우시다.
당신 경외하는 이들에게 양식을 주신다.

한국의 성인 복지 124위

최조이 바르바리



성인명: 최조이 바르바리 (崔召史 Barbara)

신분: 양반, 과부, 순교자

활동연도: 1790-1840년

최조이(崔召史) 바르바라는, 1801년 경기도 여주에서 순교한 최창주 마르첼리노의 딸이다. 어릴 때부터 교리를 배워 천주교 신자가 된 그녀는 부친이 순교한 뒤에는 비참한 생활을 해야만 하였다. 그럼에도 천주나 이웃에 대한 열렬한 애덕과 인내는 모든 사람들을 탄복시키기에 충분하였다.

장성한 뒤 최 바르바라는 신태보 베드로의 아들과 혼인하였으나, 얼마 안 있어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었다. 그녀는 시아버지 곁에 홀로 남은 탓에 거북하기도 하였고 어려움도 많았지만, 결코 피로나 슬픔을 나타내지는 않았다. 또 1827년 정해박해 때에는 시아버지와 같이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적도 있었다.

이후 최 바르바라는 친척이나 친구들의 집에 얹혀살아야만 하였다. 그 와중에서도 그녀는 오랫동안 옥에 갇혀 있는 시아버지를 자주 찾아갔고, 미약하나마 시아버지와 다른 죄수들에게 도움을 베풀려고 노력하였다.

1839년 기해박해 때에 최 바르바라는 전라도 광주에 있던 홍재영 프로타시오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던 교우들과 같이 체포되었다. 이내 전주로 압송된 그녀는 첫 번째 문초와 형벌을 평온한 마음으로 참아 받았다. 그런 다음 감사 앞에 끌려가자, 1801년에 순교한 최창주 마르첼리노의 딸이라는 것을 뚝뚝하게 고백하였다. 또 '자신의 시아버지 신 베드로가 올봄에 전주에서 순교하였다.'라는 사실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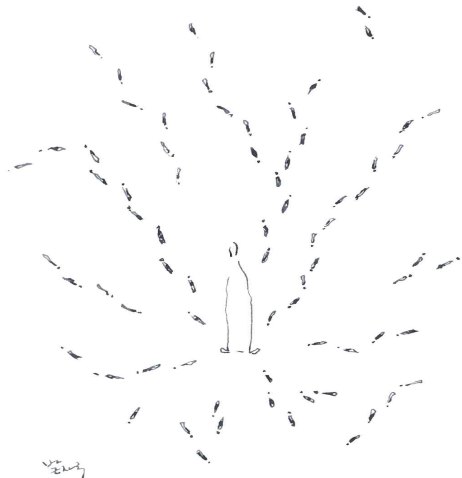
감사는 최 바르바라의 고백을 들은 뒤 "너는 죽는 길밖에 없다."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녀는 "죽음은 제가 바라던 것이고, 오래전부터 저는 그 준비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최 바르바라는 이후 조정에서 사형 판결이 내려올 때까지 옥에 갇혀 있게 되었다. 그런 다음 동료들과 함께 형장으로 끌려나가 참수형으로 순교하였으니 이때가 1840년 1월 4일(음력 1839년 11월 30일)로, 당시 그녀의 나이는 50세였다.

복 음 록 상

- 배영길(비드로) 신부 / 예수회

발자국



아무리 모른다 해도
나는 알지.

내 발자국이
어떻게 찍혀
이곳까지 왔는지.

싫다 하여
지울 수 없는 게,
내 발자국이야.

나는 알고 있지.
어디 나만이겠어
나의 발자국을 아는 이가
또 있지.

상화이야기

신 비탈레 비실리키 성당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 살펴볼 그림은 이 성당이 완공될 당시 로마 황제인 유스티아누스 황제를 그린 것으로, 황제(역시 황제를 뜻하는 보라색 의복)는 성체를 담은 접시를 들고 예수님이 그려진 공간을 수행원들과 함께 향하고 있다. 황제는 성직자들과 정치인 그리고 군인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이는 마치 삼위일체처럼, 권력의 중요한 3대 요소를 뜻하는 것처럼 보인다.

맞은편에는 황녀인 테오도라가 마찬가지로 많은 수행원을 이끌고 성혈이 담긴 성배를 들고 예수님 쪽으로 향하고 있다. (왼쪽에 문이 보인다.)

본 주보가 흑백으로 출력된다는 것이 매우 유감스러울 정도로 이 모자이크의 화려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이다.

<다음 주에 계속>

김은혜(벨리사벳)



교 구 소 식

군중부원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연중 제16주일: 백골 우형원 신부

◆ 교구장 통정

- 국군중앙 주교좌 성당 미사

때: 7월 19일(주일) 11:00

◆ '군중의 시간' 인내

때: 주일 오후 4시 - 5시

평화방송 라디오(105.3Mhz, 서울)

군중교구, 평화방송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청취가 가능합니다.

많은 청취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빌사벳을 따라" -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고 말씀하셨다." (요한 21,19)